

# 월간 실적보고

## 2016.06

### Summary of 2016 June

1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35.6%** 성장
  - 패키지 **20.7%** / 티켓 **58.3%** YOY 성장 (9.4만명 / 8.1만명)
2. 중국 **70%** , 남태평양 **37.4%** , 미주 **35.4%** , 동남아 **20%**
  - 플러스 성장 지역 (4곳) 평균 성장률 **40%**
  - 중국 **70%** 역대 최고 월간 성장률
  - 남태평양, 미주 **35%** 성장률
  - 동남아 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 회복

### 6월 Review

**6월 합산 (패키지+티켓) 성장률 35.6%, 송출인원 17.4만명.** 그간의 부진을 떨치며, 작년 연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묶여있던 여행수요가 돌아오면서 대부분 지역이 고르게 성장했습니다. 2015년 발생한 MERS에 의한 기저효과도 중첩되면서 더욱 높은 성장성을 보였습니다.

**패키지 성장률 20.7%, 송출인원 9.4만.** 2016년 들어 다소 부진하던 패키지의 성장이 회복되면서 악재의 영향권 안에 놓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.

**티켓은 성장률 58.3%, 송출인원 8.1만.** 티켓도 2015년 연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지속했습니다.

### 6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6	93,783	80,505	174,288
2015	77,715	50,852	128,567
YOY	20.7%	58.3%	35.6%

패키지 YoY : 4월 4.2% → 5월 -5.3% → 6월 20.7%

티켓 YoY : 4월 42.1% → 5월 28.5% → 6월 58.3%

총송객 YoY : 4월 15.9% → 5월 6.2% → 6월 35.6%

### 지역별 성장

6월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**중국 70%, 남태평양 37.4%, 미주 35.4%, 동남아 20%** 입니다.

**중국 +70%**는 2010년 이후 최고 월간 성장률입니다. 6월이 중국여행 성수기인 것과 타 지역에 비해 MERS로 인해 전년 6월에 받은 타격이 가장 커서 기저효과도 가장 큰 것이 높은 성장의 요인이었습니다.

**동남아 +20%**, 13개월 만에 20% 이상 성장하며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부진을 메우는 모습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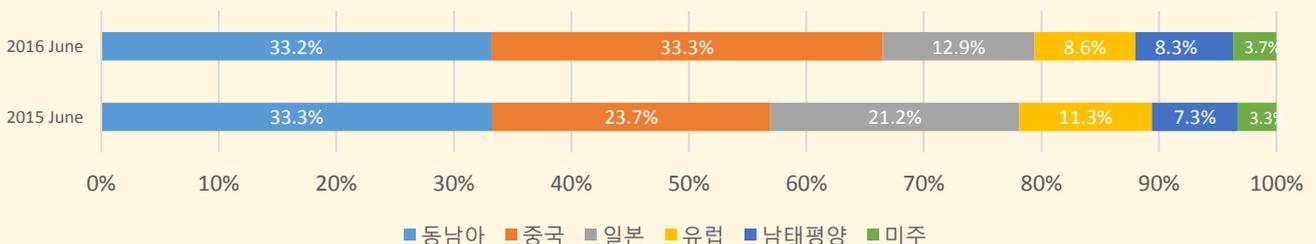
**남태평양과 미주는 각각 +37.4%, +35.4%**로 꾸준히 유럽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

**일본은 -26.7%**, 전월과 마찬가지로 지진의 여파와 전년 동월의 높은 성장률 부담으로 역성장했습니다.

**유럽도 -7.6%**로 성수기인 3분기를 맞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며 역성장 폭을 줄였습니다.

**2016년 견조한 모습을 보여온 지역들은 성수기인 7,8월에도 꾸준한 성장성이 예상됩니다.** 부진한 일본과 유럽은 성수기를 지나면서 악재 영향에서 벗어나 **4분기 부터는 좋은 예약률**이 기대됩니다.

### 인원 비중



**예약률 증감 (PKG)**

(단위 : 명, %)

	16년 7월	16년 8월	16년 9월
증감률	44.5%	25.2%	45.64%

\* 2016.6.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**7월**은 성수기와 전년 MERS 영향으로 인한 낮은 기저가 겹쳐 매우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

**8월**도 7월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좋은 상황입니다. 더불어 작년에 없었던 광복절 연휴도 있습니다.

하지만 작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9월 추석연휴로 인해 예약이 다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9월**은 7월 수준의 예약률입니다.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예약도 일찍 시작된 영향도 있습니다.

**현 예약률**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기저 효과가 줄어들면서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, 그간 여러 악재에 둘러있던 패키지 수요가 **크게 올라오는 모습**은 그대로 **유지될** 것으로 예상됩니다.